



11면

남원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착공식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음 6월 20일) 제35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완주·전주 통합 정부 “전폭 지원”

김관영 도지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 전달
우동기 위원장 “특례시 지정, 균형발전 차원서 검토”
이상민 행안부장관, “행·재정적 적극 지원” 약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장을 만나 완주군이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했고, 통합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과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 통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완주·전주 통합이 확정되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과 직·간접 통합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및 도지사 의견서를 정식 제출하고 면담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완주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군간 통합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대폭 지원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24일 익산시 수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완주·전주통합은 지역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상인

/이만호 기자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4개 시·도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첫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갖고 공동결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 발전 동행 본격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첫 정기회의·정책토론회

행정협의회 전환·운영규약 제정... 공동결의 다짐

시·도별 특례 추가에 긍정적 환경 조성 효과 기대

김관영 지사 “고도의 자치권 이루기 위해 힘 모으자”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동결의로 서로 간 입법 활동에 협조해 시·도별 특례 추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기회의는 행정협의회 전환 및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4개 시·도 협력을 위한 공동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회의의 법정협의회 전환을 통해,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전환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이정은 부위원장의 기조연설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가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수연 제주대 교수, 조영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위한 대응 방향 및 고도의 자치권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시대의 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목표를 더 빠르고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협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이며, 대표회장으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될 바 있다. 임기는 1년으로 올해 말까지이며, 김 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속 조치 추진

새만금청·시군·유관기관 등 관계자들 참석 워크숍 개최

맞춤형 지원사업·투자보조금 설명·기업유치 방안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전주 캠퍼스종합기술원에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내 14개 시군, 새만금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역 산업진흥원, 캠퍼스 등 관계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기회발전 특구 지정 내용과

맞춤형 지원사업, 투자보조금 설명, 기업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 기회발전 특구는 지난 6월 25일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4개 시군 특화산업인 동물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 융복합의 3개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88만 평이 지정됐다.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4개 시·군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

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는 한편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유치 담당자들과 서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기회발전 특구라는 기회를 살려 기업유치를 이끌어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 5,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제9대 후반기, 새롭게 출발합니다!

김제시의의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GIMJE CITY COUNCIL